

“제3회 양돈인의 날”



- ▲ 지난 6월 19일 서울대 수원캠퍼스에서 「제3회 양돈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 ▲ 본회 최상백 회장이 개회식에서 기념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단합해서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고 있다.
- ▲ 이날 행사는 “돈육수출 지속방안과 청정돈육 생산기술의 보급”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농림부·경기도·도드람양돈조합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와 본회가 주관한 “제3회 양돈인의 날” 행사가 지난 6월 18일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양돈인의 날” 행사에서는 최상백 본회 회장, 소만호 축산국장, 김강식 한국육류수출입협회장,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등 업계, 학계 등 양돈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돈육수출 지속방안과 청정 돈육 생산기술의 보급」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청정 고급돈육 생산기술 개발 ▲청정 냉장돈육 생산기술 개발 등에 관한 강의를 있었으며, 정오에는 우수양돈가 농림부장관 포상식과 기념 축하연 행사를 가졌다. 오후에는 ▲한국양돈 발전 방향 ▲돈육수출중단이 한국양돈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돼지콜레라 박멸대책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청정돈육 품질 인증제 도입방안 등의 강의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개회식에서 한인규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IMF 한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축산물의 완전개방과 함께 양돈업도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육질의 고급화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히고, “최근 국내에서 농

(SWINE DAY)" 행사

- 홍보부 -

림부 기획연구과제로 개발된 청정 돈육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결과 및 시급을 요하는 돼지콜레라 박멸대책과 지속적인 돈육수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 「제3회 양돈인의 날」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 최상백 회장은 기념 축사를 통해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 전 농가가 동참해야 할 것이며, 최근의 다이옥신 파동 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청정 사료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학계 뿐만 아니라 생산자, 관련업계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우수양돈가 포상식에서는 이용모 마산지부장(방역대책 분야), 국중길씨(전산화 분야), 이상열씨(생산성 향상 분야), 박연옥씨(방역대책 분야) 등 4명이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전반적으로 강의 위주의 행사로 일관되어 양돈인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적인 양돈인들을 위한 토론의 장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양돈농가는 "강의가 너무 어렵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는 자조 섞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정오에는 우수양돈가 농림부 장관 포상식과 기념 축하연 행사가 있었다. 사진은 기념 축하연에서 김강식 육류수출협회장(좌 맨 끝)의 선창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배를 하는 장면.
- ▲이용모 본회 마산지부장(우측)이 소만호 축산국장으로부터 농림부 장관상을 수여받고 있다.
-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양돈가들이 본회 회장(좌 맨끝) 등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